

제12차 실무위원회 관련 언론스크랩

2019.08.12.(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일보	경제세계문화엑스포 등 국제교류행사 홍보 경북도, NEAR 실무위원회 참가	
2	신문	대구일보	지역 국제교류 행사 알리고 참여 이끌어요 경북도, NEAR에 대표단 파견	
3	신문	경북신문	경북도, NEAR에 대표단 파견... '경주엑스포' 국제교류행사 홍보	
4	신문	경북연합일보	道, NEAR에 국제행사 교류 손짓	
5	신문	경북일일신문	경북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서 개최	
6	신문	일간경북신문	제12차 NEAR실무(간부)위원회 개최	
7	신문	경안일보	경북도, 동북아 5개국에 세계문화엑스포 등 적극 홍보	
8	신문	경상매일신문	중·일·러·몽골에 道국제교류행사 알렸다	
9	신문	경상투데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국제교류행사 홍보	
10	신문	내외일보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 6일~8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	
11	신문	문화매일	경북도,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간부)위원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국제교류행사 홍보

### 경북도, NEAR 실무위원회 참가

경북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열린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참가,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러시아 야쿠츠크 시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내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지난 2005년 이래 경북도가 국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별 명예홍보대사 위촉방안 등 NEAR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도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 “지역 국제교류 행사 알리고 참여 이끌어요”

### 경북도, NEAR에 대표단 파견 경주문화엑스포 등 홍보 펼쳐

경북도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열린 제12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에 대표단을 파견,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경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단은 경북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파견했다.

NEAR는 동북아시아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분야 교류를 위해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창설했다.

현재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77개 자치단체가 회원이다.

산하에는 경제인문, 문화, 관광 등 17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와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번 실무위원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오는 10월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과 제13회 경제·인문교

류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했다.

앞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후 경북도가 국제공원을 위해 NEAR 상설 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회원단체별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 경북도, NEAR에 대표단 파견... '경주엑스포' 국제교류행사 홍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5개국 23개 광역지방정부 참석 경제인문교류분과위 계획설명 회원국에 각종 행사 동참 요청

경상북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계획 등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야쿠츠크시에서 개최된 이

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재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내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상북도가 국제공헌을 위해 NEAR 상설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별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했다.

김옥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단체에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0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6개국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베트남의 호찌민시가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연합의 주요안건을 협의하고 있다. 서인교 기자



경북도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열린 제12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에 대표단을 파견, 경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하고 회원국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道, NEAR에 국제행사 교류 손짓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 러시아서 실무위원회 참석 10월 경주엑스포 등 홍보전 회원단체 적극적 참여 요청

경북도는 지난 6~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자리 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계획 등 경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했다.

러시아 야쿠츠크시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내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북도가 국제공헌을 위해 NEAR 상설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별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

EAR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경북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도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단체에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실무위원회와 함께 사하공화국이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제1차 NEAR 체육분과위원회도 개최, 각 회원단체에 계승되고 있는 전통스포츠의 보급 및 교육, 발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NEAR 산하에는 경제, 문화, 관광 등 17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인호기자



경북도가 지난 6~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열린 제12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에 대표단을 파견,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경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했다.



## 경북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서 개최

경북도는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계획 등 경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했다.

시아 야쿠츠크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0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상북도가 국제공헌을 위해 NEAR 상설 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별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경북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도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단체에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실무위원회와 함께 사하공화국이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제1차 NEAR 체육분과위원회도 개최되었는데 각 회원단체에 계승되고 있는 전통스포츠의 보급 및 교육, 발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재 NEAR 산하에는 경제인문, 문화, 관광, 환경, 방재, 농수산 등 17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6개국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베트남의 호찌민시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의 주요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 제12차 NEAR 실무(간부)위원회 개최



경상북도는 2019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계획 등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야쿠츠크市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020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상북도가 국제공원을 위해 NEAR 상설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 별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회원단체에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실무위원회와 함께 사하공화국이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제1차 NEAR 체육분과위원회도 개최되었는데 각 회원단체에 계승되고 있는 전통스포츠의 보급 및 교육, 발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재 NEAR 산하에는 경제인문, 문화, 관광, 환경, 방재, 농수산 등 17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6개국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베트남의 호찌민시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의 주요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여 NEAR의 창설을 주도함은 물론, 2004년 중국 하이룽장성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왕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사무국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각국 회원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 경북도, 동북아 5개국에 세계문화엑스포 등 적극 홍보

## 제12차 NEAR 실무위원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서 개최

### 6개국 78개 지자체 구성... 국제기구로 발전 가능성 ↑

### 내년 총회 앞두고 회원국들과 연대·통상 교류 강화

경북도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립한 국제기구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경북도 알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창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창설 정신에 걸맞게 동북아지역에 서로 인접해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 현실적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결성한 국제기구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난 1996년 경주에서 연합이 출범한 이래 동북아연합 사무국의 영구적 유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5차 총회(중국)총회에서 상설사무국(본부)의 설치와 제안하고 각각의 지역한 유지경쟁을 돕고 도합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또 이철우 지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2년간 이끌어 갈 2세대 신임 사무총장(지방 1급

상당)에 김옥재 전(前) 주(駐)후쿠오카한국총영사를 임명해 유라시아, 환태평양 북방으로 대변되는 한동해를 이용해 북방지역과의 통상·교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계획 등 경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하는 등 본격 경북알리기에 나섰다.

러시아 야쿠츠크시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재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0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북도가 국제공연을 위해 NEAR 실설사

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명 명예 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했다.

김옥재 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동북아시아 지역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단체들이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실무위원회와 함께 사하공화국어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제1차 NEAR 체육분과위원회도 개최돼 각 회원단체에 계승되고 있는 전통스포츠의 보급 및 교육, 발전전략 등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현재 NEAR 산하에는 경제인문, 문화, 관광, 환경, 방재, 농수산 등 17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6개국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베트남의 호찌민시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연합의 주요 안건을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각국 회원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

서 채용한 16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 ga7799@paibc.com

# 중·일·러·몽골에 道국제교류행사 알렸다

## 대표단, NEAR 실무총 파견 경주엑스포 등 적극 참가 요청

경북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안 등 경북도의 국제교류행사 등을 알렸다.

러시아 야쿠츠크시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0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북도가 국제공헌을 위해 NEAR 상설

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별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 경북도는 오는 10월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의 적극참가를 요청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단체에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실무위원회와 함께 사하공화국이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제1차 NEAR 체육분과위원회'에서는 각 회원단체에 계승되고 있는 전통스

포츠의 보급 및 교육, 발전전략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6개국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베트남의 호찌민시가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NEAR 산하에는 경제인문, 문화, 관광, 환경, 방재, 농수산 등 17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뤄진다.

회의 개최는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가 개최되며, 이곳에서 연합의 주요 안건 등이 협의·결정된다.

이종팔 기자



##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국제교류행사 홍보

경북. 실무위원회에 대표단 파견  
엑스포 개최계획 설명·참가 요청

경북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 계획 등 경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야쿠츠크시(市)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0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북도가 국제공헌을 위해 NEAR 상설 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별 명

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경북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도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단체에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실무위원회와 함께 사하공화국이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제1차 NEAR 체육분과위원회도 개최됐는데 각 회원단체에 계승되고 있는 전통스포츠의 보급 및 교육, 발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용진 기자syj@hanmail.net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 위원회, 6일~8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2019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지리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계획 등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야쿠츠크시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0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상북도가 국제공헌을 위해 NEAR 상설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별 명예 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로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개최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도 각종 국제교류행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단체에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실무위원회와 함께 사하공화국이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제1차 NEAR 체육분과위원회도 개최했는데 각 회원단체에 계승되고 있는 전통스포츠의 보급 및 교육, 발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NEAR 산하에는 경제인문, 문화, 관광, 환경, 방재, 농수산 등 17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6개국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베트남의 호찌민시가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연합의 주요 안건을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경북하청해 기자  
hch@naewoelbo.com



## 경북도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간부)위원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2019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에 김호진 일사리경제산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계획 등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행사를 홍보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야쿠츠크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사하공화국 총리 및 김옥재 NEAR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에서 23개 광역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020년 NEAR 총회를 1년 앞두고 회원단체의 실국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각국 회원단체 대표들은 2005년 이래 경상북도가 국제공헌을 위해 NEAR 상설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회원단체별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안 등 NEAR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세부 프

그램 및 제13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단체에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옥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연합 사무국이 회원단체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단체에도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실무위원회와 함께 사하공화국이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게 된 제1차 NEAR 체육분과위원회도 개최되었는데 각 회원단체에 개성되고 있는 전통스포츠의 보급 및 교육, 발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재 NEAR 산하에는 경제인문, 문화, 관광, 환경, 방재, 농수산 등 17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행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참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민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6개국 7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NEAR의 회원으로, 베트남의 호찌민시가 준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으며, 격년으로 총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합의 주요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여 NEAR의 창설을 주도한 것은 물론, 2004년 중국 베이징 상성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왕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사무국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각국 회원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경북도/경승초 기자

